



승리를 향해 달려라 1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남자 축구 A대표팀 선수들이 소집 훈련을 펼치며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22일 울산문수구장에서 볼리비아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의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세대교체 나선 벤투 감독 “나이보다 실력”

한국 축구대표팀 22·26일 평가전 대비 합숙훈련 “전술의 기본 틀은 유지...포메이션 변화 줄 수 있다”

“나이보다는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겨냥해 ‘세대교체’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나이보다 실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2일 볼리비아(오후 8시·울산문수구장)와 26일 콜롬비아(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 전에 대비해 18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오후에 소집돼 합숙 훈련을 시작했다. 27명의 선수 가운데 이강인(발렌시아), 백승호(지로나), 이정용(보훔) 등 3명은 24명이 파주NFC에 모였다. 이들 3명은 항공기 일정 때문에 19일에 귀국해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대표팀의 특징은 어린 선수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점이다. 이강인은 ‘18세 20일’의 나이에 벤투 감독

의 호출을 받았고, 20세의 김진민(리퍼링)과 22세의 백승호(지로나)도 태극마크를 달면서 대표팀의 평균 나이를 끌어내렸다. 벤투 감독은 훈련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실력 우선’을 강조하며 세대교체의 의지를 강조했다. 벤투 감독은 이번에 발탁한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질문에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며 “실력이 되면 나이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인과 유럽에서 만나 면담을 했던 것에 대해선 “지난 2월 국내에서 경기가 없을 때 유럽으로 가서 많은 경기를 지켜보고 선수들과 면담도 했다”라며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강인은 대표팀에서 뛰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지가 컸다. 이강인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능력이 좋은 선수다. 이번 평가전에서 출전 시기는 훈련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1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남자 축구 A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소집 훈련을 펼치는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말했다. 벤투 감독은 특히 골키퍼부터 공격 전개를 시작하는 빌드업 전술의 틀은 유지하면서 포메이션에는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공개했다. 그는 “빌드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

인 전술의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평가전에서는 포메이션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동안 주로 사용한 4-2-3-1 전술 이외에도 우리는 4-3-3 전술과 3-4-2-1 전술 등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개선할 부분은 있다. 득점 기회를 만들고 득점이 적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과감한 공격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개선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대표팀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월 A매치 2연전의 의미에 대해선 “아시아컵에서 팬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의 질과 의욕, 전술 이행 등은 나쁘지 않았다”라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모습도 점검하고 새로운 선수들도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대표팀에 오면 득점력이 떨어지는 손흥민(토트넘) 활용법에 대해서도 “손흥민은 여러 포메이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며 “다양한 자리를 뛸 수 있는 만큼 어떤 포지션을 맡길지 훈련하면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FC, 브라질 출신 공격수 윌리안 영입

포르투갈·그리스 등 유럽서 138경기...스피드·드리블 장점

프로축구 광주FC가 브라질에서 온 특급 공격수 윌리안을 영입하며 화력을 보강했다.

광주는 18일 그리스 1부리그서 활약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윌리안(25·Willyan da Silva Barbosa·사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윌리안은 토리노FC(TorinoFC, 이탈리아 세리에A) 유스 출신으로 비토리아 세투발(Vitoria Setubal, 포르투갈 1부), 파나이톨리코스(Panetolikos, 그리스 1부) 등 선수생활 대부분을 유럽 1부리그서 활약했으며 138경기 15골을 기록했다.

2014/2015시즌 나시오날(Nacional C.D, 포르투갈 1부)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27·스타드 드 랑스)과 6개월간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170cm/62kg의 날렵한 체격을 지닌 윌리안은 빠른 스피드와 1:1 돌파, 드리블이 장점이다. 화려한 개인기와 다재다능함으로 좌우 측면 모두 소화가능하며, 전방 압박과 연계플레이가 뛰어나다.

특히 지난 12일 파나이톨리코스 소속으로 폴타인(1득점)을 소화하는 등, 곧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



고 있다. 박진섭 감독은 “윌리안의 스피드와 개인기량이 팀 전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펠리페와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광주 공격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윌리안은 “광주 이적이 가시화 되면서 펠리페에게 한국과 광주에 대해 많은 조언을 구했다. 조직적이고 끈끈한 팀워크가 좋아보였다”며 “광주 팀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이정 기자 chaajung@

곡성군청 이영승 볼링 마스터즈 금메달

여자 일반부 우승...박대회, 남자 고등부 개인전 1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곡성군청의 이영승(사진)이 실업 입단 이후 첫 볼링 마스터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자연과학고의 박대회도 남자 고등부 개인전을 제패했다.

1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이영승은 지난 4일부터 광양에서 계속되고 있는 제3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중별별링선수권대회(가야볼링장) 여자 일반부 마스터즈에서 10게임 합계 230.2점을 때려 현 국가대표인 임소현(부산남구청·224.2점)과 국가대표 상비군인 홍해니(서울시실업군·223.2점)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영승의 활약으로 곡성군청 볼링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3인조전)를 따내며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5인조전 금메달, 2인조전 동메달 획득의 기세를 이어갔다.

전남자연과학고의 박대회는 남자 고등부 개인전에서 231.8점을 기록하며, 이강산(서울명지고·225.7점)과 백승민(경기선주고·222.5점)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



달(3인조전)을 획득한 바 있는 박대회는 지난 2월까지 벌어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발전에서 막판 탈락하는 아쉬움을 맛봤다.

한편,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3위(1,380점)에 입상한 전남 볼링은 2019년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 수상자인 박종남 회장(52)을 중심으로 각종 전국대회 및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다수 유지, 개최하며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차이정 기자 chaajung@

메시, 라리가 통산 33번째 헤트트릭 달성

바르셀로나, 레알 베티스에 4-1 승...메시, 바르셀로나에서 개인 통산 최다 477승

나흘 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2골 2도움의 맹위를 떨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사진)가 이번에는 정규리그 무대에서 개인 통산 33번째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메시는 18일(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의 베니토 비야리에서 열린 2018-2019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3골을 몰아치면서 바르셀로나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메시의 무서무서한 결정력이 제대로 발휘된 한판 대결이었다.

메시는 전반 18분 만에 페널티아크 오른쪽 부근에서 시도한 프리킥을 강력한

원발슛으로 레알 베티스 골대 왼쪽 구석 상단에 꽂았다.

메시는 전반 25분께에도 선제골과 비슷한 거리에서 원발 프리킥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오른쪽 구석을 향했지만, 골키퍼의 몸을 날린 슈퍼세이프에 막혔다.

결승 골도 메시의 몫이었다. 메시는 전반 추가시간 수아레스가 찢러준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원발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18분 수아레스가 상대 수비수 4명을 농락하는 절묘한 드리블에 이은 찢기 골을 꽂아 승기를 굳혔다.

후반 37분 레알 베티스의 로렌소 모론

에게 실점한 바르셀로나는 후반 40분 메시가 이번 라리타치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칩샷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하며 4-1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메시는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 개인 통산 33번째 헤트트릭을 작성,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세운 프리메라리가 역대 최다 헤트트릭(34차례)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더불어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674경기에 출전해 개인 통산 477승째를 따내면서 사비(알 사드)가 가지고 있던 바르셀로나 역대 개인 통산 최다승



(476경기) 기록을 넘어섰다. 사비는 476승을 맞보는 데 767경기가 걸렸지만 메시는 477승을 쌓는데 674경기만 필요했다. 무려 71%의 승률이다. /연합뉴스

전남도소년체육대회 오늘 개막

4월 5일까지 전남 일원서

전국소년체전 대표선수 선발

전남지역 청소년들의 체육축제가 19일 열린다.

전남도교육청은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2019년 전남도소년체육대

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전북도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전남도 대표 선수 선발전으로 초등부 18종목 886명, 중등부 31종목 1천11명 등 1천897명의 학생 선수들이 그동안 같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까지 전국소년

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9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그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및 권역별 운동부 운영협의회, 우수선수 캠프, 운동부 시설 현대화 지원, 스포츠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선수 관리 및 학교체육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함평중 레슬링팀 전국 중학대회 종합 2위

송민섭·임재혁 1위...전남체육중 금1, 은1, 동1개 획득

함평중학교가 송민섭과 임재혁(이상 3년)의 소중한 금메달 2개를 앞세워 단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함평중학교 레슬링팀은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에서 벌어진 제37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 및 제29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 남중부 그레코로만형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함으로써 종합1위를 차지한 부산체육중(금 2-은 1)에 이어 종합2위를 달성했다.

3위는 강원체육중(은 1·동 2개)이 영광을 안았다.

송민섭은 남자 중학부 그레코로만형 60kg급 결승전에서 주특기인 영치결이, 되치기, 옆굴리기 등을 활용하여 배우영(강원중)에 8:0 테크니컬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송민섭은 이번 대회 전제임을 테크니컬포로 상대를 제압함으로써 ‘체급 절대강자’임을 뽐냈다.

팀 동료인 임재혁도 그레코로만형 80



kg급 결승전에서 주특기인 업어치기와 옆굴리기 등을 적절히 섞으며 김준수(양영중)를 12-2 테크니컬포로 제압했다.

전남체육중학교(학교장 염세철)도 45kg급 유승현이 금메달을, 55kg급 김민성이 은메달을, 48kg급 김다원(이상 3년)이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현재까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각각 품에 안았다.

한편, 함평군청은 일반부 그레코로만형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49점을 획득하며 수원시청(86점), 부천시청(54점)에 이어 종합3위에 올랐다.

/차이정 기자 chaajung@